

전북 소비심리 석 달째 낙관적 수준 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하락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중심으로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4로 전월(112.3)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낙관적임을 의미하는데, 전북은 10월 이후 석 달 연속 110선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해, 전북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 전국과 전북 모두 소비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 인 수준이지만,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반영되며 전반적인 지

수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 가운데 12월 전북지역에서는 경기 관련 지표 하락이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101에서 94로 7포인트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110에서 105로 떨어졌고,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체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 인식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표가 소폭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95에서 94로 낮아졌고, 가계수

입전망 지수 역시 101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다만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100으로 전월과 동일해, 향후 개인 가계 여건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112로 변동이 없었다. 세부 지출 항목별로는 여행비와 교육비, 주거비 지출 전망이 소폭 상승한 반면, 내구재와 의류비, 교양·오락·문화비 지출 전망은 하락해 소비 패턴의 선별적 위축이 나타났다.

고용과 금융 여건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취업기회전망 지수는 100에서 96으로 하락해 고용 여건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아졌으나, 금리수준전망 지수는 92에서 98로 상승해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늘었다.

가계 저축과 부채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현재가계저축 지수는 98에서 96으로, 가계저축전망 지수는 95에서 98로 각각 상승했다. 현재

가계부채 지수도 100에서 103으로 높아졌으나, 가계부채전망 지수는 102에서 100으로 하락해 향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물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 지수는 142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가격전망 지수도 123에서 126으로 올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 임금수준전망 지수는 123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12월 조사에서는 경기 판단과 전망 지표가 하락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 흐름과 고용, 물가 여건 변화가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전북지역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74가구가 응답했다. /오상근 기자

“손오공과 떠나는 국민연금 여행”

국민연금공단, 학습만화 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국민연금공단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습만화 감상문 공모전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독서 흥미를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40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학습만화 '마법천자문 국민연금원정대' 감상문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마법천자문 국민연금원정대'는 인기 만화 캐릭터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주요 제도, 기금운용, 급여 혜택,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학습만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접수된 작품은 창의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활용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6명 등 총 20명의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과 기념품이 수여됐으며, 상장은 각 학교를 통해 전달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코랄로, 위수탁 계약

글로벌 대체 수산 식품 기업으로 생산 기반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글로벌 대체 수산 식품 기업과 손잡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임주기업인 (주)코랄로(Korab)와 식물성 대체 수산물 생산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코랄로는 진흥원이 보유한 식품·바이오 분야 생산 장비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대체 수산물 제품을 국내에서 본격 생산하게 된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산업화센터 전경.

이에 따라 코랄로는 국내외 시장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국내에서 대체 수산 식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코랄로는 2022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미세조류와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공동 발효(Co-fermentation) 기술을 통해 식물성 대체 수산물 '뉴 피시(New Fish)'를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실제 생선과 유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하는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

민 등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0~14일 이내의 짧은 발효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랄로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식품 영업허가와 냉장·냉동 대체 생선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는 등 국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는 대구 펠렛 제품을 중심으로 B2B와 B2C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웰니스 음료와 동물사료, 균사체 소재 등 신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역 내 식품·바이오 생산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 유망 혁신기업의 도내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대체 식품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취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신임 본부장에 윤여일 전 인사처장이 취임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신임 본부장에 윤여일 전 인사처장이 취임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23일 윤여일 신임 본부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최상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혁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계통 안정과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본사 에너지전환실장과 마케팅총괄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전 내부에서는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수평적인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 전북본부는 윤 신임 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북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침수안전산업 시작품 지원 성과 가시화

에이파워, 우수기업 선정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침수안전산업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5년 전북 침수안전산업 시작품 설계·제작 지원사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원기업 가운데 에이파워(주)를 최종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침수안전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침수 및 재

난 대응 기술의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작품 제작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TP는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시작품 설계와 제작을 지원했다.

최종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에이파워(주)는 '안전사고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공급용 지중 저압배출(접속함)' 시작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우기철 감전 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지

중 저압접속함의 체결 불량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으로, 현장 적용성과 시민 안전 확보 효과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에이파워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시작품을 한국전력과 연계해 현장 실증까지 이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전북본부 관할 고창지사와 남전주지사에서도 시범 적용을 완료해, 실제 전력 설비 환경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Bravo Korea', 스마트애플어워드 금융연계서비스 '대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외국인 특화 금융·생활 플랫폼 'Bravo Korea(브라보 코리아)'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스마트애플어워드'에서 금융연계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애플어워드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4,000여 명의 인터넷 전문가 평가단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심사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 앱 평가 행사다.

'Bravo Korea'는 전북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금융 및 생활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외국인 전용 통합 플랫폼으로, 금융상품 안내, 비대면 상담, 계좌 및 카드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특히 다국어 지원과 외국인 이용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설계로 외국인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출시 이후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